<h1>나 혼자만 레벨업-26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w074798aaa3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26화</p>  
<p>1. 거래</p>  
<p>유진호가 얼빠진 얼굴을 했다.</p>  
<p>"형님, 벌써요?"</p>  
<p>"뒷말은 안 들어도 알겠다."</p>  
<p>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.</p>  
<p>딱히 유진호가 싫은 것은 아니었다.</p>  
<p>조금 이상한 놈 같긴 해도 태도가 싹싹하고 의리도 있어 보였다.</p>  
<p>미디어에서 보던 재벌들과는 달랐다.</p>  
<p>하지만 부잣집 도련님의 헌터 놀이에 어울려 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.</p>  
<p>"더 할 말 없으면 간다?"</p>  
<p>"혀, 형님!"</p>  
<p>일어서려는 진우를 유진호가 황급히 붙잡았다.</p>  
<p>"형님, 딱 20번! 아니, 19번만 같이 가 주세요!"</p>  
<p>"어디를? 던전을?"</p>  
<p>"네! 보수는 톡톡히 드리겠습니다."</p>  
<p>유진호의 목소리가 간절했다.</p>  
<p>진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.</p>  
<p>헌터 일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.</p>  
<p>돈과 사명감.</p>  
<p>유진호는 둘 중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았다.</p>  
<p>아마도 헌터 일을 조금 더 위험한 익스트림 스포츠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닐까.</p>  
<p>여태까지 진우는 그리 짐작하고 있었다.</p>  
<p>얼마 전 던전에서 그런 사고를 겪고도 공격대를 만들겠다고 나선 건 꽤 의외였지만.</p>  
<p>'세상엔 별별 인간이 다 있는 법이니.'</p>  
<p>안전 불감증에 걸린 부잣집 도련님이 하나쯤 있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았다.</p>  
<p>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유진호의 눈빛이 묘하게 비장했다.</p>  
<p>'뭔가 의도가 있나?'</p>  
<p>톡톡히 드리겠다는 '보수'보다 같이 가 달라는 레이드 '19번'쪽이 더 흥미를 끌었다.</p>  
<p>진우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을 시작했다.</p>  
<p>'가만... 저번이 첫 레이드라고 치고, 앞으로 19번의 레이드를 더 해야 한다는 거면...'</p>  
<p>설마 이 자식.</p>  
<p>결론에 도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.</p>  
<p>진우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.</p>  
<p>"너 혹시 길드 마스터 면허라도 딸 생각이냐?"</p>  
<p>"네, 형님!"</p>  
<p>커피를 안 시킨 게 다행이었다.</p>  
<p>마시고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뿜어 버렸을 테니까.</p>  
<p>"네가 길드 마스터가 되겠다고?"</p>  
<p>"그게 이야기가 좀 복잡합니다, 형님."</p>  
<p>유진호는 얼굴을 아까보다 더 심하게 붉히며 말했다.</p>  
<p>"제발 이야기라도 좀 들어 주십시오, 형님."</p>  
<p>"..."</p>  
<p>어떡할지 고민하던 진우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앉았다.</p>  
<p>"그래, 한번 들어나 보자."</p>  
<p>아직 약속한 1시간이 다 안 지났으니까.</p>  
<p>이야기 정도는 들어 줄 수 있다.</p>  
<p>유진호도 잽싸게 맞은편 의자에 엉덩이를 붙였다.</p>  
<p>"형님 말씀대로 전 길드 마스터 면허를 따고 싶습니다."</p>  
<p>헌터가 길드 마스터 면허를 따는 건 어렵지 않았다.</p>  
<p>레이드 경험 20회 이상의 헌터일 것.</p>  
<p>이 최저 조건만 갖춰지면 간단한 필기시험을 통해 면허를 획득할 수 있다.</p>  
<p>물론 실력 없는 헌터가 만든 길드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을 테고, 최소 길드원 숫자를 유지하지 못하면 길드 자체가 사라지지만 말이다.</p>  
<p>유진호가 말을 이어 나갔다.</p>  
<p>"아직 대외에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지만, 실은 아버지께서 길드를 만들려고 하시거든요."</p>  
<p>"유진건설에서 길드를?"</p>  
<p>"네."</p>  
<p>유진건설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건설 회사였다.</p>  
<p>건설 말고도 많은 분야로 사업을 확장해 승승장구하고 있는 기업이었는데, 최근에는 헌터 관련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.</p>  
<p>'그런 곳에서 직접 길드를 만든다?'</p>  
<p>진우가 관심을 보이자 유진호도 신나서 설명을 덧붙였다.</p>  
<p>"강한 헌터들을 영입해 대형 길드로 키우고, 헌터 관련 사업들을 그 밑에 넣으려고 하십니다."</p>  
<p>기업이 헌터 쪽 사업을 하려면 길드와의 공조가 필수였다.</p>  
<p>A,B급 게이트에서 나오는 마수들의 마정석이나 사체, 마나석 같은 보물들을 수거하려면 대형 길드들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니까.</p>  
<p>"그걸 이제부터는 자급자족하겠다, 이거군."</p>  
<p>"정확하십니다, 형님!"</p>  
<p>유진건설의 자금력 정도면 길드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.</p>  
<p>문제는 누가 길드를 운영하느냐 하는 것.</p>  
<p>"아버지께서는 S급 헌터를 고용해 마스터로 세우고 제 형을 부마스터로 넣어서 길드를 기업으로 운영하실 생각이십니다만..."</p>  
<p>진우는 유진호가 하고 싶은 말을 눈치챘다.</p>  
<p>그렇게 하면 불안 요소가 생긴다는 거다.</p>  
<p>길드에서 마스터가 가지는 권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이었다.</p>  
<p>부마스터 측에서 마스터를 고용한 상태라도 후에 둘 사이에 마찰이 생긴다면 마스터가 길드 자체를 장악해 버릴 가능성이 있었다.</p>  
<p>그렇다면 방법은 하나.</p>  
<p>절대로 고용주를 배신하지 않을 마스터에게 길드를 맡기면 된다.</p>  
<p>이를테면 형제라든가, 아니면 아들이라든가.</p>  
<p>회장 유명한에겐 아들 유진호가 있었다.</p>  
<p>"하지만 제가 마스터 자리를 얻기엔 형의 경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헌터 관련 사업에 손을 대서 막대한 이익을 얻은 것도 다 형의 아이디어고요."</p>  
<p>형은 31세에 이미 유능한 기업가가 됐다.</p>  
<p>그에 비하면 동생은 22살의 대학생에 불과했다.</p>  
<p>D급 각성자라는 특이한 이력이 있기는 해도.</p>  
<p>회장은 장남에게 길드를 맡길 생각이었다.</p>  
<p>장남은 헌터가 아니라 마스터가 될 수 없지만, 헌터 사업에 대해 잘 알고 큰 실적을 거뒀으니까.</p>  
<p>리스크가 있더라도 감수하겠다는 거다.</p>  
<p>"너는 아버지를 설득시켜 마스터 자리에 앉고 싶은 거고?"</p>  
<p>"네. 그렇습니다, 형님."</p>  
<p>진우는 유진호가 필사적으로 자신을 끌어들이려 하는 이유를 알아챘다.</p>  
<p>상급 헌터를 고용해 길드장 면허를 따 봤자 그건 돈으로 산 면허에 불과하다.</p>  
<p>하지만 자신 같은 하급 헌터들을 데리고 20번의 레이드를 성공해 면허를 딴다면?</p>  
<p>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.</p>  
<p>헌터들을 이끌 수 있다는 걸 인정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.</p>  
<p>그게 유진호의 계산이었다.</p>  
<p>유진호가 길드 마스터가 되면 부마스터에 S급 헌터를 앉히고 유능한 헌터를 긁어모으면 된다.</p>  
<p>마스터와 부마스터 두 자리 중 하나는 실력 있는 헌터로 채워 놔야 다른 헌터도 안심하고 오니까.</p>  
<p>그러려면 20번의 레이드가 꼭 필요했다.</p>  
<p>"형님, 도와주세요! 형님밖에 없습니다!"</p>  
<p>유진호는 고개를 숙였다.</p>  
<p>진우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첫 번째 레이드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.</p>  
<p>거미에게 한 번, 황동석에게 한 번.</p>  
<p>도합 두 번이나.</p>  
<p>믿을 수 있는 든든한 아군이 필요했다.</p>  
<p>'형님은 믿을 수 있다.'</p>  
<p>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적을 죽일 수 있는 냉혈한이지만, 약자의 목숨을 함부로 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공정한 사나이.</p>  
<p>진우야말로 적격이었다.</p>  
<p>하지만 진우에게는 유진호가 필요하지 않았다.</p>  
<p>그래서 진우는 물었다.</p>  
<p>"나한테 돌아오는 대가는?"</p>  
<p>고개를 든 유진호가 환한 얼굴로 준비해 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다.</p>  
<p>안에서 나온 것은 건물 조감도였다.</p>  
<p>진우가 그걸 받아 들었다.</p>  
<p>"길드 사무실로 쓰려고 짓고 있는 건물입니다. 예상 시가는 3백억 정도지만 더 올라갈 겁니다."</p>  
<p>협회에서 관리하고는 있지만 던전에서 몬스터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다.</p>  
<p>그래서 협회 지부나 대형 길드가 있는 곳 주변의 땅값은 뛰기 마련이었다.</p>  
<p>목숨보다 더 귀한 재산은 없으니까.</p>  
<p>작은 길드라도 근처에 있으면 안전은 보장된다.</p>  
<p>하물며 대형 길드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라면?</p>  
<p>말할 필요도 없었다.</p>  
<p>"제가 마스터가 된다면 딱 1년, 길드가 자리 잡을 때까지만 쓰고 형님 명의로 변경해 드리겠습니다. 물론 공증도 깔끔하게 해서 뒷말 나오지 않게끔 만들겠습니다."</p>  
<p>C급 레이드 19번에 3백억짜리 건물이라...</p>  
<p>진우가 씩 웃었다.</p>  
<p>"마스터가 될 수 있다면 그래도 남는 장사라 이거냐?"</p>  
<p>"그렇습니다, 형님."</p>  
<p>유진호는 그날, 던전 안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걸 배웠다.</p>  
<p>어설픈 헌터를 쓰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.</p>  
<p>그렇다고 유명한 헌터를 쓰면 아버지를 설득시킬 명분이 없어진다.</p>  
<p>그러나 진우는 다르다.</p>  
<p>E급 헌터면서 C급 보스와 C급 헌터 여럿을 혼자서 상처 없이 처리했다.</p>  
<p>'형님은 최소한 B급... 아니면 그 이상의 실력자.'</p>  
<p>진우와 손잡으면 C급 레이드 19회쯤은 아무 문제도 없으리라.</p>  
<p>마스터가 될 수 있다면 3백억도 아깝지 않았다.</p>  
<p>남은 건 진우의 승낙뿐.</p>  
<p>'설마 이런 제안을 걷어차진 않으시겠지?'</p>  
<p>유진호는 초조하게 진우의 눈치를 살폈다.</p>  
<p>어떻게 할까?</p>  
<p>진우는 고민에 잠겼다.</p>  
<p>3백억.</p>  
<p>어마어마한 금액이다.</p>  
<p>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을 15억이라고 치면 20번을 연달아 당첨돼야 손에 쥘 수 있는 돈이었다.</p>  
<p>심지어 그 가치가 오르기까지 한단다.</p>  
<p>평범한 헌터에게는 당장 도장부터 꺼내 들 만큼 솔깃한 이야기였다.</p>  
<p>하지만 진우는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.</p>  
<p>유일무이(唯一無二).</p>  
<p>성장이 가능한 유일한 헌터인 것이다.</p>  
<p>이대로 퀘스트와 레벨업을 반복한다면 언젠가는 S급까지, 아니 그 이상으로 클 수도 있었다.</p>  
<p>'S급 이상이 될 수 있다면 3백억은 아무것도 아니다.'</p>  
<p>S급 헌터들은 계약금만 수백억이 넘어간다.</p>  
<p>그 어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도 S급 헌터들과 몸값을 비교할 수 없었다.</p>  
<p>상급 헌터들의 숫자가 곧 국력을 의미하는 시대.</p>  
<p>S등급의 대우는 상상을 초월했다.</p>  
<p>그러니 지금 진우에게 최우선 과제는 돈이 아니라 성장이었다.</p>  
<p>성장을 하기에는 혼자가 편하다.</p>  
<p>'변수는 줄이는 게 좋지.'</p>  
<p>같이 사냥하면 경험치가 줄어들 수도 있고, 보는 눈 때문에 움직이기 불편해질 수도 있다.</p>  
<p>이번 던전에서도 귀찮은 일이 생길까 봐 유진호에게 원치 않은 협박까지 해야 했다.</p>  
<p>스케줄을 팀에 맞춰야 하는 것도 문제였다.</p>  
<p>이래저래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.</p>  
<p>'돈이야 다음에 벌어도 되니까.'</p>  
<p>아쉽지만 거절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.</p>  
<p>'잠깐.'</p>  
<p>돈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묘안이 하나 떠올랐다.</p>  
<p>'이 방법이라면...'</p>  
<p>고개를 들자 긴장한 눈빛의 유진호가 보였다.</p>  
<p>진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.</p>  
<p>"한 가지 조건이 있다."</p>  
<p>유진호의 얼굴이 급 밝아졌다.</p>  
<p>"뭐든지 말씀하세요, 형님!"</p>  
<p>하지만 조건을 듣고도 웃을 수 있을까?</p>  
<p>진우는 속으로 웃음을 삼키며 말했다.</p>  
<p>"너와 나, 둘만 가는 거다."</p>  
<p>"예?"</p>  
<p>유진호가 화들짝 놀랐다.</p>  
<p>"혀... 형님, 실례지만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니라면... 형님과 저 둘이서만 C급 던전을 클리어해야 한다, 뭐 이런 말씀이십니까?"</p>  
<p>"정확하게 이해했네."</p>  
<p>유진호의 얼굴은 사색이 됐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